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  
서로 사랑함

2/13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3:14, 34-35

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34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35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일 1:1-3

1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2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4:8, 16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 단지 명령에 불과한 것만이 아님을 의미한다. 주님의 계명은 또한 생명 공급을 전달하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6 장 63 절에서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 장 7 절의 ‘말씀’은 생명 공급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우리에게 생명과 영을 공급하는 말씀이다. 주님의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명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인 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킬 때마다 생명 공급을 받는다. (요한일서 라이프스타디, 17 장, 1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3 장 34 절과 35 절에서 ... 이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로서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요일 3:11).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천연적인 방식으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요일 4:8)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깨달을 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우리는 천연적이고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이런 유형의 사랑은 윤리적이고,

천연적이며, 심지어 문화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신성한 분배 안에서 누린 결과이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즉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누림은 어떤 산출,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삼일 하나님을 누린 결과는 신성한 사랑이다. ... 이 사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와 유기적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요일 5:1).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며, 많은 다른 사람들 또한 그분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면, 그 결과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린 결과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사랑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분은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을 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랑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적셔야 한다.

신약에 있는 사랑에 대한 계시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다르다. 사랑이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3 장 24 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안다. 이 영은 우리를 사랑이신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지켜 주시므로써,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심지어 우리의 존재가 되시게 하신다. 더욱이 이 영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실질로 우리를 적시고 계신다. 결국 우리 존재의 섬유 조직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로 조성될 것이다. 이것은 신성한

사랑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 우리를 낳으신 분이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므로, 우리는 또한 그분에게서 난 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이들을 포함한 세 인격 사이의 사랑을 갖는다. 이러한 세 인격 사이의 사랑은 사랑이신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 오직 우리가 신성한 출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요 1:12-13, 요일 5:1, 2:29, 3:9, 4:7, 5:4, 18).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러한 출생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 이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분, 곧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난 이들도 사랑한다. 이것이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신약의 결론, 10 권, 믿는 이들, 163 장, 93-9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5-17 장; 신약의 결론, 10 권, 믿는 이들, 163 장

## 2/14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일 4:9-10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

#### 딤후 3:4-5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낳은 씻음과 성령의 새롭고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 엡 2:4-5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

사람의 상태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원이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근원이다.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사람에게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그분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한다. 그분의 의에 따르면, 죄인들은 마땅히 심판 받아야 한다. 그분의 거룩함에 따르면, 것처럼 더러운 죄인들은 오직 그분 앞에서 쓰러져 죽기에만 적합하다. 그분의 의는 우리를 유죄판결 하고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를 거절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셨다. (성경의 중점진리, 1 권, 2 장, 29-30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2 장 4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분의 이러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이들까지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딤후 3:4-5).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며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요 3:16).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이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귀중한 구원을 성취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요일 4:9).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픔을 기꺼이 겪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셨다(요일 4:10).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셨다.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라!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덜 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후 즉시 우리에게 그분과 화목하기를 간청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분을 거절하며 대적했던 그분의 원수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과 화목하라고 간청하신다. ... 이 간청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성경의 중점 진리, 1 권, 2 장, 30-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50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47 장*

**2/15 수요일**

### 아침의 누림

**롬 5:5**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일 2:7-8**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8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요일 3:11, 23**

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롬 8:37-39**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렘 31:3**

3 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

---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롬 5:5).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와 확증이 필요할 때가 아주 많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아마 우리는 “왜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이렇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 이런 의심이 생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 주 예수님을 불렀던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확인해

주시며 확증해 주신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지금은 네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제가 통과했던 괴로움과 시험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의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의 여정에서 저에게 닥쳐왔던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시려고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9 장, 121-12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주셨다면, 확실히 그분은 우리를 해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를 아신다. 선택은 그분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다만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전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9 장, 122-123 쪽)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때에 이 계명이 새로운 서광으로 비치고, 그 후에도 새로운 빛과 신선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비치 주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 장 8 절의 ‘그것’은 ... 형제를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새롭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옛 계명이 새롭다는 것은 주님께 참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매일 행할 때에 그 계명을 계속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도 참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만에 영원히 그 계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빛 비춤을 받고 신선해지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 장 8 절에서 요한은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고 말한다. 어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참빛이 비치는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다. 참빛은 주님의 계명의 빛이다.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의 서광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옛 계명은 그리스도인 생활 전반에 걸쳐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된다.

어떤 종류이든 간에 사람의 계명은 주어진 다음에는 점점 옛것이 된다. 사람의 계명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계명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밝아지거나 빛이 비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 그분의 계명은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을 비춘다. 이 살아 있는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때 하늘에 속한 빛이 비치게 된다. 하늘에 속한 빛이 비칠 때 옛것은 새롭게 된다. 특히 그것은 옛 계명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며 빛이

충만하게 한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7 장, 168-1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9, 21 장

### 2/16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요일 4:11-12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

#### 요일 4:13-15, 17-21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뵈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

신성한 생명의 미덕인 신성한 사랑을 실행하려면,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이 필요하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소유한 신성한 씨이다. 우리 존재 안에 신성한 씨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에 더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 영 안에 신성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 ... 신성한 생명은 근원이고, 신성한 영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실지로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영에 의해 수행되는 신성한 생명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27 장, 25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타고난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이며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서

우리의 사랑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럴 때 이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 체험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타고난 사랑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의 타고난 사랑이 매우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들과 뒤엎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천연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타고난 사랑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조만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체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동일한 이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함을 보기 바란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이러한 조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지속적이고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생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을 살아 내는 생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을 살아

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이 신성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누림이 되고, 이 림이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성한 교통의 두 번째 조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이룬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6 장, 163-165 쪽, 17 장, 173 쪽, 34 장, 330-33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8, 27-29, 34 장;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 6 장

2/17 **금요일**

### 아침의 누림

요일 3:14

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마 16:24-25**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엡 5:1-2**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요이 4-6**

4 나는 부인의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5 부인, 이제 나는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써 보내면서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6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바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계 3:7-8**

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 왜냐하면 교회생활이 단체적인 생활, 곧 형제들과 관련된 생활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대답은 교회생활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형제 사랑이 없는 곳에서 교회생활은 끝난다. 사실상 형제 사랑이 교회생활이다. ...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다.

요한일서 3 장 14 절에 언급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탄적인 죽음이라는 근원, 본질, 요소, 범위에서 벗어나 신성한 생명이라는 근원, 본질, 요소,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이다.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며 이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8 장, 178 쪽, 27 장, 26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들이라는 계시가 있는 후, 몇 절 뒤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마 16:24)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 장 25 절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 우리는 24 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그다음 절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24 절에 언급된 ‘자기’는 25 절에 언급된 ‘혼생명’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혼생명을 자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혼생명을 부인하고 잃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취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실현하고 교회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우리의 혼생명, 우리의 자아에 적용하고 그분을 따라야만 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다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롬 8:4), 그것은 부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시기 때문이다(고후 3:17, 딤후 4:22).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 안에서 행하고 살고 일하는 법을 알아야한다.

주님을 따를수록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더욱더 갈망할 것이다. 우리는 자아를 부인할수록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고, 십자가를 질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살아 있는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낮 시간에 형제들을 만나고자 할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게 하실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3 년, 2 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 3 장, 467-469 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행복과 오락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기쁨이다. ... 하나님은 오락에 대한 욕구를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오락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한다. ...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락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6장, 154-155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동역 가운데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씻음, 2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2권, 그 영광 몸, 16장

2/18 토요일

### 아침의 누림

요 15:5, 9-11, 12, 13-17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10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11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4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15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16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한복음 15 장은 모든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1-5 절). 한 나무에는 단지 가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가지들이 있으며, 모든 가지들은 교통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15 장 후반부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12, 17 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13:34-35). ...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1권,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9장, 423-424쪽)

모든 사람들은 깊은 속에서 진정한 상호성을 지닌 삶과 사랑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호성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 ...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호적인 사랑은 강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내적 생명이 이루어 낸 것이며 열매를 맺는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충격력을 갖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몸의 생활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서 살수록, 또한 몸의 생활의 실재를 가질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급우와 이웃들에게 강한 증거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형제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호적인 사랑을 볼 때, 매우 인상을 받고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 것이다. 참된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충격력을 갖도록 돕는다. 나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교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믿는다. 모든 가지들은 서로서로 함께 열매를 맺는다. 어떤 가지도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1권,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9장, 424-425쪽)

활력 그룹의 상태는 하나 안에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요 13:34-35). ...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함께 집회를 하기 때문에 분명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활력 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상태는 이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상태여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 안에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7 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이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1, 23 절). 이것이 사람들을 얻는 길이다. ... 우리 중 둘이나 셋이 한 사람처럼 나간다면,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역동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충격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활력 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관한 교통(1), 7 장, 65 쪽)

우리가 모든 방해와 속박과 좌절시키는 요소들을 버린다면 성령은 움직이실 자유로운 길을 얻으실 것이다. 성령께서 자유로운 길을 얻으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 많은 새로운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또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곧 성도들이 참되게 영적 생명 안에서 자랄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은사가 표현되기 시작할 것이다. 더욱이 성도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할 것이다. 신성한 생명을 체험한 결과로 사랑이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요일 3:14). 이렇게 하여 교회생활은 살아 있고, 유력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깊은 영 안에서 이것을 갈망하고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4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주님을 접촉하고,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가짐, 4 장, 77-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1권,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9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8 장

2023. 2. 13 ~ 2023. 2. 18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11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5-16장  
신약의 결론, 10권, 믿는 이들, 163장

2/19 주일

아침의 누림

요일 3:16-21

16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17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아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습니까?

18 어린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합시다.  
19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20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요일 5:1-3, 16

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2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찬송: 867 (英) 주님의 지체로서 (中:629)

1 주님의 지체로서 주 표현해야 해  
제 기능 발휘하여 주 풍성 나타내  
방관자 되지 말고 지체로서 행해  
죽음의 손상 제해 교통 가져오세.

2 독립된 일 버리고 한 군대 이루어  
온 몸이 협력하여 서로 의지하세  
내 선택 버리고서 생명 흐름 따라  
분리함 버리고서 성령 공급하세.

3 탄 중심 버리고서 주께만 집중해  
주 안에 교통하며 은혜에 참여해  
그는 머리와 내용 우린 그의 충만  
집회의 활동 통해 주만 나타내세.

4 임의로 비평 말고 사랑 안에 세워  
피차 온전케 하며 서로 짝어지세  
타고난 생명에서 자아서 구출돼  
영 안에 훈련 받아 몸의 봉사 이뤄.